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 재학생의 중도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 Institutional, Social Variables on Determin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Intention

권혜진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Hye-Jin Kwon(hjkwon@kn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개인적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동기를 낮추고 학업 지속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사이버대학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00명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수집된 336명의 자료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다반응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료 총 32명 응답분량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ow 15.0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의 흥미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환경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 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개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도탈락 의도를 결정하지 않게 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사이버대 | 중도탈락 의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lowering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rate and fostering continuous learning environment through understanding that cyber university student's private variance, an education institute variance and social variance have the impact on a student's determining dropout. For this, we selected students in A cyber university and carried out surveys for 500 students from April first to May 31st, 2009 using convenience sampling. We excluded answers whos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or overlapped among answers of 336 students and used 304 answer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for Winow 15.0 for data analysis. First, it proved that individual interest variance affects the dropout. Second, it turned out that educational institute's environment variance has impact on the dropout. Third, it proved that social environment factor affects the dropout. Fourth, only individual variance among individual, an educational institute and social variance has meaningful impact on the dropout in terms of statistics

■ Keyword : | Cyber University | Dropout Intention |

I. 서 론

Drucker(20003)는 20세기 이후 정보 혁명을 예견하고 지식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수년 안에 정보의 양은 폭증하며 이에 따라 교육제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15].

Drucker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의 예측대로 현대 지식 사회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지식과 정보는 이미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양도 방대하여 적절한 선택과 보유, 해석,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현대는 과거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내용과는 다른 지식과 방법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일고 있고 더불어 재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정보기술의 진보와 진화는 사회의 급변화를 가속화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사이버대학을 들 수 있는데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대학과 다르게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수업진행과 각종 학사관리 대부분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대학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 전개 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학습 스타일, 학습 능력, 정보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12][13][17], 학습자 편이성과 경제성, 유연성을 지닌 수평적이고 진보적, 대안적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사이버대학 개교 원년 9개교 설립을 시작으로 그 동안 총 17개 대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현재 12개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공히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9년 현재 12개교 사이버대학과 6개 원격대학 형태의 사이버형태 시설은 각각 20,260명, 77,00명으로 총 27,960명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20].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광범위한 입학 대

상을 비롯하여 간편한 전형 방법으로 인하여 사이버대학의 총 입학 정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도탈락생이 늘어나 입학정원 대비 등록률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2007년 사이버대학의 전체 평균 재등록률은 82% 정도로 오히려 일반 대학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을 냉고 있다[1].

재학생의 휴학, 제적을 포함하는 중도탈락과 재학생 보유율은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2]. 특히 재학생 보유율과 등록률은 학교의 운영과 재원과도 직결된 문제이어서 대학은 대학 정원과 이에 따른 학생 유치, 재학생 보유에 따라 학교 전체의 발전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재학생의 중도탈락은 학교의 재원 상실을 의미하며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학교 운영과 동시에 대학의 질 평가에도 커다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대학의 등록금 시장 분석한 교육인적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현재보다 입학 정원 미달 인원이 166,647명에 달하며 학생의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학생 등록금 시장은 매우 위축될 것이라 예측된다[6].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오프라인의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 보유율 저하 원인을 파악하고 재학생 보유와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 역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 원인과 예방책, 대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년 발생하는 중도이탈 학습자를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면 학교 구성원 간의 공동체 해체,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사이버대학의 잠재적 중도이탈 학습자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는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이 기존 일반 기관보다 다양하며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중도탈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5][9]. 사이버대학 위상 강화와 안정적 학교 운영, 학습자에 대한 고품격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도 대학, 사회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에서의

중도탈락을 연구한 전주성(1996)은 개인변인군, 사회구조 변인군으로 분류하였고[11],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과정은 단일 변인만의 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Carr(2000)는 사이버대학의 높은 중도탈락 원인으로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이 정규대학 학생들에 비해 고연령, 생활 부담으로 인한 학업 전념의 어려움을 들어 사이버대학의 학습 환경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들었다[19].

Kember(1989)는 원격교육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지고, 학습자 대부분이 학교 교육을 받은 지 오래 된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이, 자녀수, 주거환경과 같은 학습자 개인 상황변인을 중도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16]. Tyler-Smith(2006)는 사이버교육을 접한 학습자에게는 학습 과제의 복잡성과 인지적 과부하 같은 초기의 경험이 중도탈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들었다[18]. 박진형(1999)은 사이버대학과 유사한 방송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원격대학 대학생의 학업중단 특성을 개인적 특징, 환경 변인으로 직업과 결혼 변인, 과정변인으로 나누어 학업 중단을 특성을 분석하였다[4].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관련 연구 대부분이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배경을 분석하거나 ([10][11][13]), 중도탈락 요인([5][14]),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의 관계 규명([9]) 등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공히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학업 지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원인과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중도탈락 요인으로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들에 의한 복합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도탈락을 결심하여 이행하지 않은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동기와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해 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도탈락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일은 중도탈락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사이

버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로써 사이버대학의 학습자의 중도탈락 동기를 낮추고 학업 지속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 이론 모형을 제시한 Boshier, Tino, Kember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하였으며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개인 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교육기관 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계층적으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 편의 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총 60일) 동안 설문을 수집하였다. A사이버대학 재학생 500명에게 인터넷 설문을 의뢰한 결과 336명이 응답하여 67.2%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다반응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료 총 32명 응답분량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N)	백분율 (%)
성별	남성	80 26.3%
	여성	224 73.7%
연령	20세 이하	43 14.1%
	20~30세 이하	128 42.1%
	30~40세 이하	94 30.9%
	50세 이상	39 12.8%
지역	서울	42 13.8%
	경기	118 38.8%
	광역시	57 18.8%
	중소도시	87 28.6%
학력	고졸	247 81.3%
	전문대졸	27 8.9%
	4년제대 이상	30 9.8%
	150만원 이하	98 32.2%
가구 소득	150~300만원 이하	132 43.4%
	300~400만원 이하	48 15.8%
	400만원 이상	26 8.6%
전체		304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가구소득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의 경우에는 Boshier, Tinto, Kember 의 중도탈락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재현(2006) 질문지[3]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변인의 경우에는 자아개념, 자기신뢰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학업능력변인과 강의, 학교생활, 전공에 대한 흥미정도를 포함하는 흥미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관 변인의 경우에는 교수·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만족도, 수업·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의 학문적 변인과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변인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가족의 경

제적 지원정도, 학습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지원정도, 교우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변인과 취업기회의 제한, 낮은 연봉에 대한 우려, 승진 기회의 제한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식변인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인을 축소, 압축하여 의미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변량의 초기치는 다중상관자승(SMC)으로 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치를 살펴본 결과, 개인 변인의 경우에는 0.721, 교육기관 변인의 경우에는 0.794, 사회적 변인의 경우에는 0.766, 자기 효능감의 경우에는 0.849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분상관계수에 음수를 취한 반영상관계수(anti-image correlation coefficient) 행렬이 모든 변인에서 대각선 값들인 MSA(Measures of Sampling Adequacy)값이 유의미하게 크고 그 이외 값들이 작아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상관행렬이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개인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변인은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고유치가 1 이상이며, 대부분의 문항들이 2개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학업능력변인과 흥미변인은 서로 다른 요인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능력변인의 신뢰도(Cronbach α)는 .816, 흥미변인의 신뢰도는 .83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개인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학업능력 변인	요인 2 흥미변인
1.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799	-.021
2. 나는 학습을 위한 나의 지적능력을 믿는다.	.736	.170
3. 나는 대학에서의 학습목표에 대해 알고 있다.	.649	.271
4. 나는 나의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195	.790
5. 나는 대학생활에 흥미를 느낀다.	-.014	.762
6. 나는 우리 대학의 강의에 흥미를 느낀다.	.455	.634
고유치(Eigen value)	1.848	1.708
설명량(%)	30.806	28.472
신뢰도(Cronbach α)	.816	.831

다음으로 교육기관 변인의 경우 교육기관 학문적 변인(강의는 다양한 자료와 매체, 도구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과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나는 우리 대학에서의 장학금, 보조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의 각각 1개 문항이 2개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교육기관 변인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과 교육기관 학문적 변인의 2개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의 신뢰도(Cronbach α)는 .763, 교육기관 학문적 변인의 신뢰도는 .716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육기관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교육기관 환경적변인	요인 2 교육기관 학문적변인
1. 나는 우리대학의 수업지원 시스템에 대해 만족한다.	.848	-.055
2. 나는 우리 대학 교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803	.097
3. 나는 우리 대학의 접근 용이성에 대해 만족한다.	.667	.140
4. 나는 교수님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082	.991
5. 나는 우리 대학의 수업,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041	.739
6. 나는 우리대학의 교수 및 강사진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86	.628
Eigen value	2.756	1.022
설명량(%)	45.930	17.036
Cronbach α	.763	.716

사회적 변인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들이 2개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지 않아 사회적 변인은 사회적 인식변인과 사회적 환경변인의 2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변인의 신뢰도는 .872로 다소 약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환경변인은 신뢰도가 .794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사회적 인식 변인	요인 2 사회적 환경 변인
1. 나는 사이버대학 졸업생은 일반 오프라인 졸업생보다 낫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921	.118
2. 나는 사이버대학 졸업생은 일반 오프라인 졸업생보다 취업 후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905	.065
3. 나는 사이버대학 졸업생이 일반 오프라인 대학생보다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842	.054
4. 우리 가족들은 내가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073	.881
5. 우리 가족들은 내가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해준다.	.106	.861
6. 나는 우리대학 학우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025	.533
Eigen value	2.394	1.726
설명량(%)	39.892	28.773
Cronbach α	.872	.794

4. 자료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및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for Winow 15.0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개인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도탈락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0'으로, 중도탈락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1'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미변인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beta)=8.650$ 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이 동일할 경우 흥미변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중도탈락 의도를 결정하지 않을 확률이 8.650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능력변인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585로 나타나 유의수준 $p<.05$ 에서는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흥미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개인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S.E.	Wald	df	p	$Exp(\beta)$
상수	-4.917	1.259	15.242	1	.000	.007
학업능력변인	.209	.382	.299	1	.585	1.232
흥미변인	2.158	.403	28.705	1	.000	8.650

2. 교육기관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기관 변인이 중도탈락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beta)=3.969$ 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이 동일할 경우 교육기관 환경적 변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중도탈락 의도를 결정하지 않을 확률이 3.96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기관 학문적 변인은 유의수준이 .965로 유의수준 $p<.05$ 에서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관의 환경적 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 교육기관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S.E.	Wald	df	p	$Exp(\beta)$
상수	-2.267	1.116	4.127	1	.042	.104
교육기관 학문적변인	-.020	.452	.002	1	.965	.980
교육기관 환경적변인	1.378	.298	21.379	1	.000	3.969

3.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인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beta)=5.294$ 로 나타나 사회적 환경변인의 수준이 증가할 경우 중도탈락 의도를 결정하지 않을 확률이 5.29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인식변인은 유의수준이 .384로 중도탈락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환경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S.E.	Wald	df	p	$Exp(\beta)$
상수	-2.097	.868	5.839	1	.016	.123
사회적 환경변인	1.667	.311	28.756	1	.000	5.294
사회적 인식변인	-.211	.243	.758	1	.384	.809

4.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중도 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개인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위계적(단계적)으로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개인 변인 만이 투입되었을 때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하게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beta)=11.346$ 으로 개인 변인이 증가할 때 중도탈락 의도를 결정하지 않을 확률이 1,13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개인 변인과 교육기관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개인

변인의 유의 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하게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기관 변인의 경우 유의 확률이 .210으로 중도 탈락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개인 변인의 유의 확률이 .001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도탈락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기관 변인의 경우 유의확률이 .263, 사회적 변인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98로 중도탈락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S.E.	Wald	df	p	Exp (β)
1단계						
상수	-5.354	1.199	19.941	1	.000	.005
개인 변인	2.429	.431	31.736	1	.000	11.346
2단계						
상수	-5.834	1.273	21.001	1	.000	.003
개인 변인	2.014	.535	14.168	1	.000	7.496
교육기관 변인	.600	.479	1.570	1	.210	1.822
3단계						
상수	-6.750	1.423	22.498	1	.000	.001
개인 변인	1.850	.546	11.504	1	.001	6.363
교육기관 변인	.546	.488	1.252	1	.263	1.727
사회적 변인	.608	.367	2.734	1	.098	1.83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 변인과 사회적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 교육기관 변인, 사회적 변인이 사이버대학생의 중도

탈락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 사이버대학의 학습자의 중도탈락동기를 낮추고 학업 지속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교육과정 제공과 다양한 교과목 제공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계속 교육,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학위과정, 비학위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의 문화적, 지적생활 함양 및 대학 편입 및 진학을 위한 학점 인정 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및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6].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양 과목 역시 학습자의 소양을 넓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과 개설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다수의 학습자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되어 학습 내용과 방법에 이해가 부족하다. 노인과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원격 강의에 대한 생소함과 학습 내용의 방대함, 신체적 특성으로 학습 속도와 이해가 다른 성인 학습자에 비해 낮고 짧은 주의력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이버대학의 학습자특성을 토대로 학습자가 사이버 강의의 감각을 향상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다. 학습 과정에서도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자 진도 및 주차별 반응을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 수준과 나이도 조절 등의 수업 개선과 학습 목표, 학습 환경에 부합된 과제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과목 내용과 수강 인원에 따라 강의 외에 문제중심학습, 팀티칭, 토론, 오프라인 병행 수업, 저널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고 이미 가공된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도 수업 대상에 적합한 수준과 과목 내용과 수준으로 운영하며 최신 정보와 자료로 수정,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 지원 시스템(LMS), 교수, 행정 서비스, 대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의 교육적 가능성과 잠재성은 시, 공간

을 초월한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대학의 접근성을 위한 노력은 사이버대학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이버대학은 시각,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8].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습자 접근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간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 쌍방적 비디오 강좌 등 지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바로 LMS와 연결될 수 있는 학습자 모듈을 개발, 학습자가 학습 진도, 학습 과제 및 결과, 학습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시각적 변별력을 높이는 등 학습자 편의성을 높여 학습 동기와 몰입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편, 사이버대학생들은 시간 부족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이 학생 상담 및 지도 인력 부족하다는 지적[9]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상담 및 지도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상담 내용을 분류하여 내용에 따라 상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투터를 활용하고 수업 전답 조교를 투입하여 교수, 투터, 수업조교의 팀팅으로 수업 내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현실성 있는 관리 인원 배정과 조직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심리적, 경제적 지원, 학습자간의 심리적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실제 오프라인 대학 등록금 수준의 1/3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생들이 학비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탈락을 결정하였는데 [5][10] 이는 사이버대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원격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7],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권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확보,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신축성 있고 탄력이 있는 등록금 책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사이버대학 간 그리고 사이버대학 내에서 전공과 계열 및 교과목에 따라 상대적 교육비용 책정과 운영을 통한 등록금의 탄력적 운영은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대학 생활에서 학생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에 대한 실시간 접속과 대화 기능을 보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간의 양방향 상호작용 기회를 주고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행사나 모임 지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원격대학 종합평가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 [2] 김수연.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제2호, pp.77-108, 1988.
- [3] 김재현,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이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4] 박진형, 원격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5] 서선주, 사이버대학생들의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6] 유신종,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인교육수요 창출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 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 임연숙, “외국 사이버 대학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 학술대회논문집*, 제1호, pp.53-76, 2001.
- [8] 임연숙,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교육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45-266, 2002.
- [9] 임연숙,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205-219, 2007.
- [10] 임연숙, 이광희,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관한 탐색 연구”, *한국교육*, 제30권, 제3호,

pp.321-347, 2003.

- [11] 전주성,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중도탈락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2] 정인성, 임철일, 최성희, 임정훈, “평생교육을 위한 웹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16권, 제1호, pp.223-246, 2000.
- [13] 정선정, 직업교육 이러닝(*e-Learning*)의 중도탈락 원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4] 주영주, 장미진, 이현주, “사이버대학 학생의 중도탈락 경험에 근거한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3호, pp.209-233.
- [15] P. F. Drucker, *The Essential Drucker*, Harper Collins Pub, 2003.
- [16] D. Kember, “A Longitudinal-Process Model of Drop-out from Distance Education,” J. of Higher Education, Vol.60, No.3, pp.278-301, 1989.
- [17] B. H. Khan, *Web-based Instruction: What is it and Why is it?*, Educational Technology Pub, 1997.
- [18] K. Tyler-Smith, Early Attention among First time Elearners: A Review of Factors that Contribute to Drop-out, Withdrawal and Non-completion Rates of Adults Learners Undertaking Elearning Programs, J. of Online Learning and Teaching, Vol.2, No.2, pp.73-85, 2006.
- [19] <http://chronicle.com/article/As-Distance-Education-Comes-of/14334/>
- [20] http://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life/1256796_10817.html

저자소개

권 혜 진(Hye-Jin Kwon)

정회원



- 1996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사)
 - 2002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8월 : 세계사이버대학 아동보육과 전임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웹 기반 학습, 교사교육, 교수-학습 방법,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